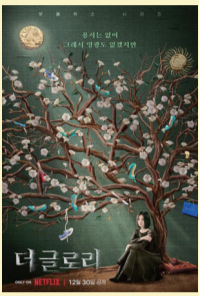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더 글로리’가 알린 학폭 파급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학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학폭을 소재로 한 ‘더 글로리’는 학폭 피해자가 어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복수극으로, 학폭 피해자들에게 통쾌함을 줬다. 폭력으로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드라마 제목은 피해자들의 공감대를 사기에도 충분했다.

실제 학폭을 비롯한 촉법소년들의 잔혹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2022년 3월 기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5390명이다.

‘더 글로리’는 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학폭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타이 더 글로리’ 해시태그를 통해 학폭을 고발했고, 태국의 배우도 가해자로 떠올랐다.

태국 배우 파왓 찻사왕디는 자폐증을 앓는 학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사과한 바 있다.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밝혔다.

학폭을 다룬 영화 ‘파수관’에 이어 엄청난 인기를 경신 중인 더 글로리의 파급력은 학폭의 실체를 낱알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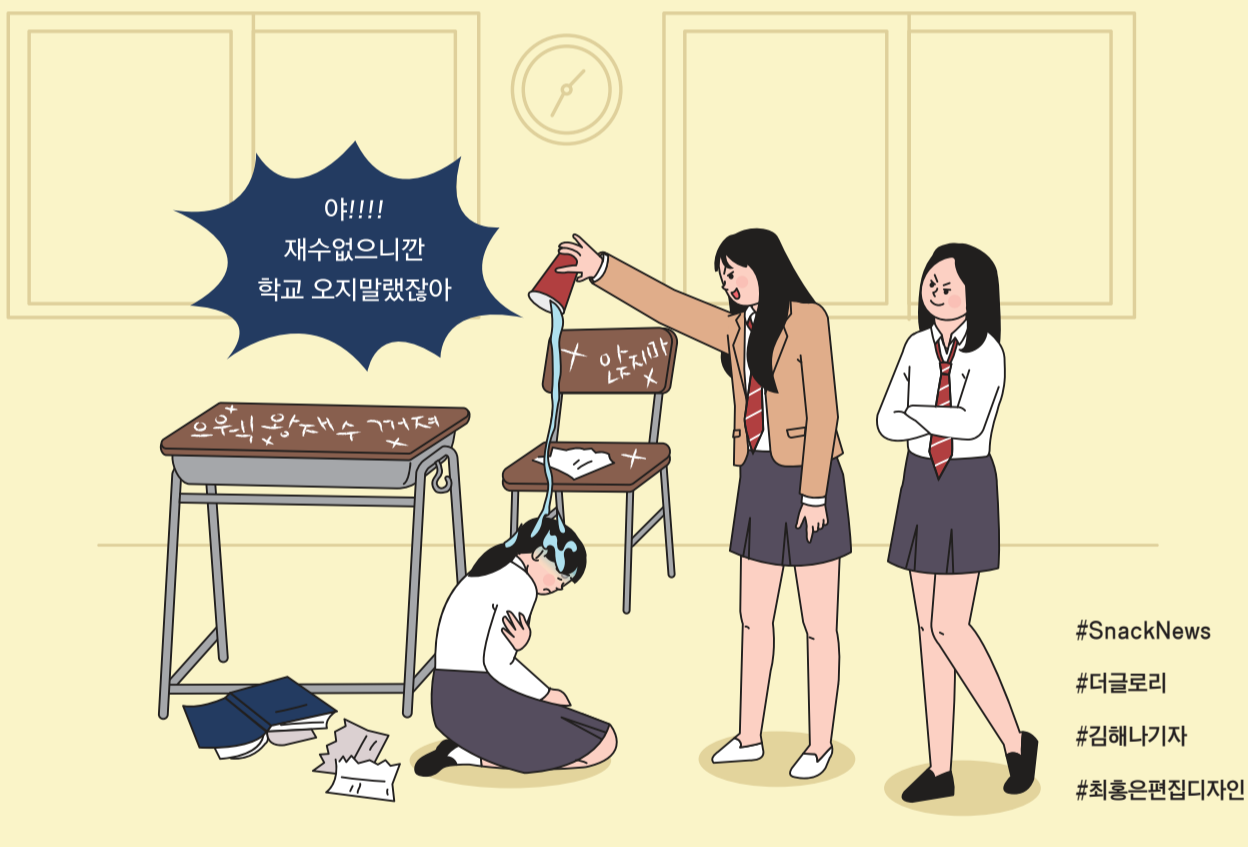
‘맞은 사람은 기억해도 틀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가해자가 만든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간다.

‘더 글로리’가 좋은 예시로 자리잡아 모든 이들이 학폭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했으면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한 장면.

뉴스스



야!!! 재수없으니깐 학교 오지말랬잖아

#SnackNews #더글로리 #김해나기사 #최흥은편집디자인



기고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교육감선거, 교육 논리와 정치 논리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교육부 차관과의 논쟁이 있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찬성하는 교육부의 논리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

교육부 차관의 주장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내용의 중립성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야, 정책 노선의 갈등이 없고, 비용도 안든다.

김영배 의원의 반론이다.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정신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범위가 충분히 검토된 것인가?

차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정치적 중립이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심의한다. 이에 대한 제재 장치도 있다.

김영배 의원의 다시 반론이다.

전교조 문제나 학교 민주주의 교육문제가 나올 때마다, 교육행정에서 그동안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논리였다. 교육감이 인사,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행정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교육감이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과소평가해도 되는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등 필요할 때는 정치적 중립의 논리를 교육행정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통제의 기제로 활용하고, 정치적 장악이 필요할 때는 가르치는 내용만 중립을 지키면 된다는 논리이다. 공평하고 자기 모순적이다. 더 나아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면서, 전광석화처럼 표 대결로 정리된 것을 보면, 교육부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화된 이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도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공평한 논리의 배경에는 직선 교

육감들에 대한 불편한 정치논리가 깔려있다. 서울을 대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보수 지지체장과 진보교육감들의 정책 노선의 차이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급식’ 정책이다. 반대로 진보적인 토양에서 다소 보수적인 교육감들도 등장한다. 지지체장과 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소 엇갈리게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뿐더러, 지역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는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중도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교육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쪽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치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여, 당파성에만 의존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결국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정치 유희리와 관계없이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다. 이것이 직접선거가 주는 가장 큰 이익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실사 교육감 선출 방식이 다르더라도, 교육이 정치 파당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심의기구 등 법률적 보완장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 교육이 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12년 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정책들은 지금,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돌봄, 맞춤형 복지, 마을 학교 등 교육복지 영역이나 민주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칠판 앞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는 학교혁신 정책 등은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치 논리를 떠나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그런 교육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학부모의 교육감 선택권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교섭/영웅, 2관 교섭/장화신은 고양이:끝내주는 모험, 3관 아바타:물의 길, 4관 교섭/메간,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상견니/돌핀보이, 7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유령/메간 천룡팔부:교룡전/스위치, 9관 영웅/상견니/메간.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